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서정아*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한국청소년개발원*

The Influences of Family, School and Community Variables on Students' Internet Behavior Problems

Kim, Young Hee · Seo, Jeong A*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Ansong, Korea
Korean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family, school and community variables influence internet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By focusing on sex differences, this study analyzes female as well as male behavior problem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gathered from 1,04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 national samp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ternet addiction i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problem. A chi-square test shows that male students have higher experience rates than female students in obscene chatting and violent games.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s are performed to know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ling for each other.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internet behavior problems, region,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interactions with their close friends,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facilities are significant variables. Interactions with friends are significa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s of both female and male student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with regard to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dolescents are discussed.

Key words: internet behavior problems, family variables, school variables, community variables, sex differences

I. 서론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5년 3,301만 명으로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율은

72.8%이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05).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97.8%, 20대 97.9%, 30대 91.0%, 40대 68.7%로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 중에서 학생이

99.1%로 가장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7.9%, 중학생 99.9%, 고등학생 99.6%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처럼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과잉몰입에 따른 중독현상, 음란물 접촉, 음란성 채팅, 폭력성 게임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명에 1명 정도는 채팅 중 성에 관한 노골적인 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인터넷 폭력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하여 폭력과 파괴행동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다(donga.com; 2000).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주로 분석하였던 인터넷 중독 뿐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우려되는 음란성 채팅, 폭력성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의 특성과 영향요인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이경남·하연미 2004; 이숙·남윤주 2004; 조남근·양돈규 2001)들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과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다. 성 차이를 언급하면서,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나 비행정도가 여자 청소년 경우보다 높다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성별차이에 관한 단순분석에 그치고 있어 성이라는 변수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나마 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도 인터넷 관련 비행보다는 일반적인 비행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신혜섭 2005; 정익중 2004). 따라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학생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 경험을 살펴보고 남녀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도시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국규모의 청소년 대상 실증분석은 찾기가 힘들다.

한편,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인터

넷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족, 학교,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Bogenschneider 1996). 가족관계적 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및 통제 등과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중 게임중독만을 분석하였거나(방희정·조아미 2003; 이경남 2003; 2004), 인터넷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관련요인에 있어서 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이경남·하연미 2004)이 매우 부족하다.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학교관련 요인 또한 인터넷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데, 친구와의 상호작용(이숙·남윤주 2004; 조남근·양돈규 2001)이나 학교적용(이경남 2004)이 관련요인으로 대두된다. 다른 요인에 비해 지역사회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지각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Bogenschneider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어느 정도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남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문제행동 경험은 어느 정도이며, 남녀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요인은 무엇인가?

II. 관련연구 고찰

1.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과 남녀차이

오늘날 청소년에게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 인터넷 관련 범죄 및 비행을 야기시키는 등 역기능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다.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중독

(백승문 등 2003; 이경남 2004; 이숙·남윤주 2004)을 고찰하였는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11%가 오랜시간 몰입에 따른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청소년위원회; 이숙·남윤주 2004에서 재인용). 또한,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게임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폭력적인 게임의 중독적 사용은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켜 청소년의 폭력 및 파괴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폭력 범죄나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경남 2004).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란성 채팅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원조교제가 범죄 보고에 나타나는 등 그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즉, 2000년 한 해 서울경찰청은 원조교제 사범 282명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가 절반을 넘는 53.5%를 차지하였다(donga.com; 2000). 이처럼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유해수준이 증폭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먼저, 성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청소년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정도가 높다는데 일치하고 있다(이경남 2004; 이경남·하연미 2004; 조아미·방희정 2003). 사실 기존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조사대상을 남자에 국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사이에 비행정도가 왜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비행을 일으키는 요인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여자청소년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인하여 이제 청소년의 비행을 더 이상 남자 청소년만의 문제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김준호·김은경 1995)을 고려해볼 때 최근 심각성이 우려되는 인터넷 관련 문제에서도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

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에 따른 인터넷 문제행동의 차이를 지적하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상승정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신혜섭 2005)가 있는가 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인터넷 중독경향이나 문제행동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조남근·양돈규 2001)가 있다.

2.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요인과 인터넷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터넷 문제행동 경험을 감소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의 관계적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남녀모두 게임중독경향(이경남 2004), 또는 인터넷 관련 비행(이경남·하연미 2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 청소년의 비행에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와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정익중 2004)가 있으나,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컴퓨터 게임사용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간섭이나 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게임중독의 경향이 높다(이경남 2004)는 주장도 있다. 또한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통제는 아들과 딸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Hagan & Simpson 1987; 신연희 2001), 딸들은 아들들에 비하여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통제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딸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혜섭(2005)의 실증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성비행은 남학생보다 가족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문제행동에 학교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남학생의 경우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이 인터넷 게임중독경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2004). Belknap(1996)의 연구에서도 딸들은 부모 또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비슷한데 반해 아들들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상호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남학생에게 있어 가까운 친구와의 밀접한 관계가 그들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그에 따른 문제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그다지 탐색하지 않았으나, 외국연구(Bogenschneider 1996)에 의하면,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를 지역사회내 시설활용 만족도로 파악하여 인터넷 유해환경에 접촉한 청소년이라도 비행행동이 일어나는지 관계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2005년)’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5년 10월 4일부터 10일간 이루어졌다. 청소년 표집을 위하여 통계청 교육통계자료(2004)를 기초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따라 교급별, 지역별, 성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층화표집 하였다. 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지역별(서울시, 6대광역시, 시·군지역), 성별 학생 비율에 따라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시·군 지역별 대상 학교 수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별로 2학년 학급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부실기재를 제외한 104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술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542명으로 전체의 51.8%, 여학생이 504명, 48.2%로 성별 비율이 비슷하다. 학교유형은 중학생 47.0%, 인문계 고등학생 32.6%, 실업계 고등학생 20.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며, 고등학생 중에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43.5%, 대도시 5.5%, 중소도시 27.1%, 읍면지역 24.0%를 차지한다. 가족유형은 양친가족의 경우가 86.6%, 한 부모 가족 등 결손가족 경우가 13.4%이며, 본인이 주관

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은 ‘중’이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아서 일반적인 학생 청소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이종원 등(2001)의 사이버 가해형 및 비가해형 문제행동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한 서정아와 김영희(200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음란성 채팅, 폭력성 게임, 과잉몰입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경험한 경우와 경험하지 않은 경우의 이항변수로 하여 활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관계 요인은 다음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Barnes와 Olson(1985: 서정아·김영희 2005에서 재인용)의 의사소통 척도를 활용하여 3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ronbach's α 는 0.84로 나타났다. 부모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과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장재홍 등(2002: 서정아·김영희 2005에서 재인용)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5문항을 선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신뢰도 계수는 $\alpha = 0.71$ 이다.

학교요인 중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김미란(2002:서정아·김영희 2005에서 재인용)이 사용한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지내는 횟수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5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까운 친구와 물려다니며 왕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0.84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이진숙(2002:서정아·김영희 2005에서 재인용)의 척도를 활용하여 5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0.85$ 이다. 마지막으로,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Bogenschneider(1996)가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여가시설에 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신뢰도 계수는 $\alpha=0.84$ 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생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경험

학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및 문제행동 경험여부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유형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행동 경험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성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하였다. 먼저, 하루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 평균 2시간 52분, 여학생 2시간 13분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길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은 중고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많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경험자는 음란채팅의 경우 전체의 11.05%가 경험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8.17%)보다 남학생(13.73%)의 경험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8.18, p<0.05$). 폭력성 게임 또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나($p<0.01$),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인터넷 몰입은 남녀모두 가장 많이 경험하는 행동으로 남학생 35.62%, 여학생 33.47%가 경험하였으며,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세 가지 문제행동을 적어도 한 개 이상

Table 1. Sex differences in experience rates of internet behavior problems

	Total (%)	Male (%)	Female (%)	χ^2	
Internet behavior problems	obscene chatting	115 (11.05)	74 (13.73)	41 (8.17)	8.18*
	violent game	153 (14.77)	134 (25.00)	19 (3.80)	92.37**
	addiction	360 (34.58)	192 (35.62)	168 (33.47)	7.61
at least one problem more	474 (45.32)	281 (51.85)	193 (38.29)	19.35***	

*; $p<0.05$, **; $p<0.01$, ***; $p<0.001$

경험한 집단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과반수가 넘는 51.85%, 여학생은 38.29%로 유의한 성 차이 ($p<0.001$)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 경험비율도 결코 낮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2.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인터넷 관련 세가지 문제행동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로, 경험이 없는 경우(=0)와 적어도 한 개 이상 경험한 경우(=1)로 나누어진다. 성별분석을 위하여 남녀로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분석에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전체의

Table 2. Variables f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Range of Scales	Mean	S.D
region	rural=0, city=1		
school age	middle school=0, high school=1		
Indep. variable	communication with parents	3 - 15	9.56 2.92
	monitoring	5 - 25	10.96 3.85
	interaction with friends	5 - 25	17.43 4.50
	school adjustment	5 - 25	14.64 4.29
Dep. variable	satisfaction with community facility	5 - 25	13.92 4.10
	experience of internet behavior problems	none=0, experienced=1	

chi-square는 23.33로서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미한 변수는 지역,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사회시설 만족도의 네 변수이다. 즉,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읍면보다 도시에서, 부모와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와 상호작용이 빈번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 여가시설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학생이 인터넷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회귀분석모형 전체의 chi-square는 19.23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 경험에 속할 위험율에는 학교급, 친구와 상호작용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가까운 친구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문제행동 집단

에 속할 위험율이 높았다. 따라서 남녀학생에게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이며, 또한 이들의 승산비를 비교하였을 때 남녀학생에 대한 친구 상호작용 요인의 영향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예측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예측변수의 수가 더 많았다. 즉, 여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남학생은 지역,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활용 만족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구분 뿐 아니라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요인이 인터넷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for students' internet behavior problems

Indep. variable.	Male		Female	
	Parameter estimation	Odds Ratio	Parameter estimation	Odds Ratio
Region	.44*	.65	-.13	1.14
School age	.27	1.31	.40**	1.49
Communication with parents	-.08*	.92	-.04	.96
Monitoring	-.03	.97	.03	1.03
Interaction with friends	.06**	1.06	.07**	1.07
School adjustment	.04	1.04	-.04	.96
Satisfaction with community facility	-.07**	0.94	-.03	.97
Intercept	.45		-.90	
Model χ^2	23.33***		19.23***	
df	7		7	

*: $p < 0.1$,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최근 심각하게 우려되는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에 가족요인,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남녀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청소년개발원(2005)에서 전국표본설계에 의해 추출된 표집을 사용하여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046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그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비율을 보인 행동은 인터넷 과잉 몰입이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몰입하는 현상은 중독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몰입하게 되며 이는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Kennedy 1998)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폭력게임, 음란성 채팅 등의 경험이 높으며, 적어도 한 개 이상 문제행동을 경험할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관련 비행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에 관하여 남학생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학생의 문제행동 경험비율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과잉 몰입하였다는 응답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학생 인터넷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나이가 많을수록 음란채팅 등 성적 문제행동에 더욱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혜섭(200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나이가 많을수록 성관계 경험, 강제적 성경험 및 성매매 등 성비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행집단에 속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둘째, 가족관계 요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 또는 부모와의 대화가 문제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익중 2004) 결과와는 다르다 하겠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부모와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연주·김혜연 2006).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을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간 인터넷 이용에 대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가 감독 빈도를 줄이거나 통제양상을 바꾸는 등 효과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 경험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 요인이 성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별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의 분석이 추후연구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학교요인 특히, 가까운 친구와 상호작용 빈도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인터넷 문제행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이경남 2004; 이숙·남윤주 2004)와 일치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친구와 만나는 목적이 유해한 인터넷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내 여가시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가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관리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넷째, 읍면지역 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 거주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부작용을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앞으로 농촌을 포함하는 대규모 단위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성별에 따른 지역간 비교 또한 가능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친구요인은 남녀학생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가족관계 요인은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몇 가지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감독정도에 대한 자료가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만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모두를 통해 그들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모자녀간 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관계변수에 의해 인터넷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부모의 감독, 통제 등 부모역할에 따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비행행동의 인과적 과정이 통제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신연희 2001).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 청소년의 가치와 행동을 형성하는 일차적 기관은 가족이고 가족이야말로 청소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비행에 대해서 가족관계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조사방법적인 측면에서, 즉, 전국규모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수집한 것에 비해 불성실한 자료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조사대상자에게 민감한 주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심층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방희정·조아미(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1-22.
- 백승문·황미영·김영희(2003) 사이버공간 중독 유형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환경. 대한가정학회지 41(1), 169-185.
- 서정아·김영희(2005)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협동연구총서. 1-223.
- 신연희(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107-132.
- 신혜섭(2005) 가정폭력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이경남(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77-91.
- 이경남(2004) 개인적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이경남·하연미(2004) 청소년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 이숙·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16.
- 이종원·임성택·최원기·최중현·심지예(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의중(2004) 청소년 비행의 성별차이. 청소년 패널 자료 발표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아미·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1), 249-275.
- 진연주·김혜연(2006)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점 인식과 인터넷 교육의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2), 79-91.
- 한국인터넷진흥원(2005)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Belkap J(1996) The invisible wome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ogensneider K(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38.
- Kennedy BL(1998)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 Electronic Journal for the 21st Century 6(2), 31-47.
- Peiser, Nadine C, Patrick CL, Heaven (1996) Family influences on self-reported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19(6), 557-568.
- 동아일보(2000) 청소년 5명중 1명 꼴 음란채팅 경험. (2000.10.11). www.donga.com